

전력기기 강자서 AI 인프라 기업으로… 직류·ESS 확장

LS일렉트릭

LS ELECTRIC

LS일렉트릭이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등 기존 전력기기 경쟁력을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와 직류(DC) 전력 시장으로 사업 영역을 넓히고 있다. 북미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접속 구간부터 내부 배전설비, 자체 발전설비까지 전력 인프라 수요가 확대되면서 신규 수주가 빠르게 늘고 있다. 5조6000억원을 넘어선 수주잔고와 국내외 생산능력 확대를 바탕으로 실적 성장세도 한층 가팔라질 것으로 전망된다.

◆ 전력기기 호조에 1분기 최대 실적… 수주잔고 5조6000억원

LS일렉트릭은 차단기와 개폐기 등 배전기기부터 중·저압 변압기, 초고압 변압기, 가스절연개폐장치(GIS)까지 전력 공급 과정에 필요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북미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투자가 확대되면서 전력사업이 전체 실적 성장을 이끌고 있다.

이 같은 성장세에 힘입어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 1조3766억원, 영업이익 1266억원을 기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33.4%, 45% 증가하며 1분기 기준 최대 실적을 냈다.

전력사업 매출은 9584억원으로 45% 늘었고 영업이익은 1056억원으로 49% 증가했다. 배전반 매출은 3563억원으로 79%, 초고압 변압기는 1642억원으로 83% 늘었

북미 데이터센터·전력망 투자에 1분기 매출 1.3조, 영업이익 1266억 전력사업·배전반 등 매출 급등

2분기 신규수주 최대 2조 전망 올해 수주목표 4.8조… 상향 가능성 전력망 접속부터 패키지 수주 가능

부산사업장 증설로 생산능력 키워 美 유타주 배전반 생산거점 증설

차세대 사업으로 직류전력·ESS 천안사업장서 직류배전 기반 생산시설 구축해 기술 실증 나서



구자균 LS일렉트릭 회장이 미국 유타주 소재 'LS일렉트릭 유타'에서 현지 직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LS일렉트릭 UL인버터 배전반.

다. 북미 데이터센터와 전력망 프로젝트에 공급되는 고수익 제품 비중이 확대되면서 외형과 수익성이 함께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수주 기반도 확대됐다. 올해 1분기 말 수주잔고는 5조6425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13%, 전년 동기보다 45% 증가했다. 초고압 변압기 수주잔고가 3조1024억원으로 전체의 55%를 차지했고 배전반은 1조1697억원, 초고압 GIS는 3585억원으로 집계됐다.

◆ 상반기 신규 수주 최대 3조원…연간 목표 상향 가능성

증권가에서는 LS일렉트릭이 2분기에 도 데이터센터와 전력기기 수요에 힘입어 실적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 유안타증권은 LS일렉트릭의 올해 2분기 매출을 1조4764억원, 영업이익을 1596억원으로 전망했다. 전년 동기보다 각각 23.7%, 47% 증가한 수준으로 영업이익률은 10.8%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실적 개선의 핵심은 신규 수주 증가다. LS일렉트릭이 제시한 올해 신규 수주 목표는 4조8800억원이다. 1분기 신규 수주는 1조900억원으로 연간 목표의 26.7%를 달

성했다.

4월 이후 공개된 수주만 약 8000억원에 달한다. 미국 중부 데이터센터용 345킬로볼트(kV)급 초고압 변압기 1066억원, 북미 데이터센터 전력설비 1700억원, 블룸에너지 대상 전력설비 3190억원, 데이터센터용 진공차단기(VCB) 등 1050억원, 38kV급 마이크로그리드 배전반 공급 계약이 잇달아 반영됐다.

2분기 신규 수주는 1조5000억~2조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연간 신규 수주 목표도 기존 4조8800억원에서 5조~6조원 수준으로 상향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손헌정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은 데이터센터 접속 구간과 내부 전력 인프라, 온사이트 발전용 전력 패키지 수요가 동시에 확대되고 있어 가장 빠르게 수주 가이드라인 상향이 확인될 수 있는 기업”이라고 분석했다.

◆ 초고압보다 배전반이 수주 증가 견인…AI 인프라 수주 1조5000억원 전망

신규 수주 증가분은 초고압 변압기보다 배전반과 데이터센터 내부 전력 인프라에서 두드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초고압 변압기 수주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2조원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데이터센터 내부 전기실과 에너지저장장치(ESS), 자체 발전설비에 공급되는 배전반 수주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데이터센터에는 외부 전력망에서 전력을 공급받기 위한 초고압 설비와 함께 내부 전기실에서 서버와 냉각설비 등 각 시설로 전력을 분배하는 중전압 배전반이 필요하다. 최근에는 전력망 접속 지연에 대응해 연료전지와 가스터빈 등 현장 발전설비를 활용하려는 수요도 늘면서 데이터센터 전력 인프라의 범위가 넓어지고 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와 배전반, 배전기기, 전력제어 설비를 함께 공급할 수 있어 전력망 접속 구간부터 내부 배전망과 현장 발전설비까지 아우르는 패키지 수주가 가능하다.

손 연구원은 LS일렉트릭의 AI 데이터센터 관련 수주가 지난해 약 1조원에서 올해 약 1조5000억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초고압 변압기 중심에서 배전반과 전력제어 설비까지 공급 범위가 넓어지면서 프로젝트당 수주 규모도 커질 것

으로 전망된다.

◆ 생산능력 확대하고 직류·ESS로 사업 확장

늘어난 수주를 매출로 연결하기 위한 생산능력 확충도 진행되고 있다. LS일렉트릭은 부산사업장 증설 등을 통해 초고압 변압기 생산능력을 대폭 확대했다.

미국에서는 유타주 배전반 생산거점 증설을 추진하고 텍사스주에도 생산과 사후 서비스를 담당할 사업 기반을 넓히고 있다. 국내에서 생산한 초고압 설비와 미국 현지 배전기기를 함께 공급해 납기를 줄이고 현지 고객 대응력을 높이려는 전략이다.

차세대 사업으로는 직류 전력과 ESS를 육성하고 있다. 데이터센터 서버와 배터리, 태양광발전 설비가 직류로 작동하는 만큼 교류와 직류의 변환 단계를 줄이면 전력 손실을 낮출 수 있다.

LS일렉트릭은 초고압직류송전(HVDC)과 중·저압 직류배전, 반도체 변압기(SST), 반도체 차단기(SSCB), ESS용 전력 변환장치(PCS) 등 관련 제품군을 확대하고 있다. 천안사업장에는 직류배전 기반 생산 시설을 구축해 기술을 실증하고 있으며 인피니언 테크놀로지스와 AI 데이터센터용 직류 전력 솔루션 공동 개발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신규 수주 증가를 실적 개선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국내외 증설 설비를 안정적으로 가동하고 납기를 관리해야 한다. 전기동과 은 등 원자재 가격 상승과 미국 관세 정책도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직류 전력 사업 역시 기술 실증을 실제 데이터센터와 산업시설 수주로 연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기존 전력망이 교류 중심으로 구축된 만큼 직류 설비의 표준화와 안전성 검증, 고객사의 투자 속도가 시장 확대를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 한 관계자는 “LS일렉트릭은 초고압 변압기뿐 아니라 데이터센터 내부에 들어가는 배전반과 전력제어 시스템까지 함께 공급할 수 있다는 점이 강점”이라며 “신규 수주 증가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생산능력 확대가 계획대로 진행될 경우 수주잔고가 실적에 반영되는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원관희 기자

wkh@metroseoul.co.kr



metro



LS일렉트릭 청주스마트공장.



LS파워솔루션이 미국 에너지 인프라 기업과 약 7026만 달러(한화 약 1066억원) 규모의 초고압 변압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사진은 LS파워솔루션 울산 사업장에서 관계자가 초고압 변압기를 소개하는 모습. /LS일렉트릭